스포츠서울

2000년 7월 29일 (토요일) 제4879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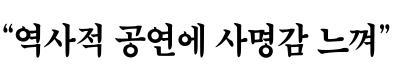
서갑숙 유럽 향수여행



'성에 대해 당당한 여 자'서갑숙(39)이 향수전 문가가 된다. 서갑숙(39)은 지난 16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 '봉자' (박철수 감독 넥스트필름 제작)의 시사 회를 마친 뒤 이튿날 유럽

으로 향수여행을 떠난 것.

평소 향수에 남다른 관 심을 보였던 서갑숙은 프 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등 지에 위치한 향수공장을 찾아 향수에 대한 전문지 식을 배운 뒤 귀국하겠다 는 말을 남겼다. 귀국하면 향수관련 전문칼럼을 기고 하는 등 향수전문가로도 활동하겠다는 것.



일본의 인기듀오 차게(왼쪽)&아스카가 기자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

벤처기업 '보고테크'와 평생계약

튀는 개성 - 화려한 율동으로 승부

강렬한 테크노곡 '여름' 인기몰이

못지않은 개성미를 갖고 있다.

팀의 리더인 란(22)은 중성적인

매력의 소유자. 재즈댄스와 한국무

용으로 다져진 몸매에서 터져나오

는 코믹댄스가 일품. 여성스러운 느

낌의 설(21)은 연극에서 다져진 무

대매너를 바탕으로 한 애교가 만점.

막내 류이(20)는 독특한 느낌의 캐

릭터로 특히 여성팬에게 인기높다.

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

멜로디에 강력한 비트의 테크노사운

드. 화러한 의상의 티키와 6명의 백

댄서들이 펼치는 무대는 가히 환상

적이다. 개성 미인그룹 티키가 펼치

는 '알록달록 여름대공습'이 가요

이들의 타이틀곡은 '여름'.누구

벤처기업으로부터 계약금 30억원

을 받고 평생 계약을 맺은 여성댄스

3인조 여성댄스그룹 티키(T.KI).

Techno Kid의 약자다. 이들은 지문

인식 보안시스템 벤처기업인 보고

테크로부터 개인당 10억원의 주식

을 계약금으로 받았다. 대신 평생 이 업체와 함께 연예활동을 펼친다.

티키가 이 같은 대우를 받게된 것

은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미 때문이

다. 요즘은 얼굴만 예쁘고 노래만 잘

부른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시대가

상반기 최고의 인기그룹으로 떠

오른 샤크라도 이들만의 개성미가

먹혀들었기 때문. 바로 티키는 이들

아니다. 개성이 있어야 된다.

그룹이 있어 화제다.

새달26~27일 내한공연 日듀오 차게 & 아스카 도쿄 기자회견

"그동안 해외공연을 여러 번 가졌지만 이번만큼 설레고 사명감을 느낀 적은 없

일본의 대표적인 듀오 차게&아스카는

'30억 몸값' 여성트리오 티키 떴다

다음달 26~27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'차게&아스카 한일친선공연'을 앞두고 25일 일본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한일 기자단과 합동 기 자회견을 가졌다. 이번 공연은 한국정부 가 지난 6월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을 한 뒤 일본가수로는 최초로 갖는 1만5천석 이상 규모의 대형공연이다.

차게&아스카는 78년 결성된 뒤 줄곧

정상의 인기를 누러온 가수로 국내에는 후지TV 드라마 '101번째 프로포즈'의 주제가 '세이 예스'로 잘 알려져 있다. 국내에서는 28일부터 티켓링크(www. ticketlink.co.kr)를 통해 예매가 시작된 다. 다음은 차게&아스카와의 일문일답

―이번 공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가.

▲기본적으로 우리 레퍼토리를 중심 으로 공연한다. 한국노래를 부르는 것도 계획 중이다. 수익금은 모두 한국여성문 화기금에 기탁된다.

지수원 첫 베드신 '온몸 열연

―한국가수에게 곡을 줄 계획도 있는

▲일단 공연을 성공리에 끝내는 것이 우선이다. 이후 한국가수와의 교류도 추

진할 예정이다. 위성채널을 통해 한국 아

티스트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특 히 HOT의 프로정신이 인상적이었다.

-20년동안 추구해온 메시지는 무엇

▲자연스러움이다. 자연의 흐름에 따

〈도쿄=위원석기자·batman@〉

라 음악을 한다는 점이다. 앞으로도 음악

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.

'배니싱 트윈' 서 신인 구필우와 뜨거운 몸짓

원조 '투캅스 걸'지수원이 스 크린 데뷔 이후 처음으로 파격연 기를 선보여 화제 다. 지수원은 미스 터리 멜로영화 '배니싱 트윈' (윤 태용 감독 Y2시 네마 제작)에서 과감한 베드신을 펼친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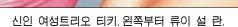
'배니싱 트윈' 은 임산부 몸속의

쌍둥이 중 어느 하나가 출산도 되기 전에 저절로 사라지는 이상현상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. 이 작품은 쌍둥이 언니의 실종을 추적해가는 동생의 숨막히는 여정을 스릴러와 멜로의 양쪽 시각에서 그러냈다. 지수원은 20대 후반 의 주부 유진역을 맡았다. 언니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상실감에 빠져 있던 유진은 우연히 만난 '아트러버'란 남자(구필우)와 격정적인 혼

"상황전개상 베드신 연기가 필수적이었고 2년반 만의 컴백작이라 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. 자칫 '벗는 배우' 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."

윤태용 감독은 "지수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촬영현장의 분위기를 완 전히 바꿔놓았다. 특히 신인 구필우를 리드하는 베드신은 일품이었다" 며 대만족을 표시했다. 다음달 26일 개봉. 〈정미혜기자·beau3@〉







영화단신

시나리오공모 대상 선정

영화진흥위원회는 26일 올해 상 반기 극영화 시나리오 대상에 이용

연의 '로러코스터'를 선정했다. 우 수작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2기생 인 김시경과 신준호의 공동작품인 '나비'와 남은정(28 방송작가)의 '동행'등 2편을 선정했다. 대상은 2 천만원, 우수작 2편은 각각 1천만원 의 상금을 받는다.



